

금호타이어 “정리하고 대신 상여금 300% 삭감”

사측 수정안 제시 ... 노조는 ‘부정적’

기능직 아웃소싱 2018년까지 단계적 시행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자구안으로 제시한 ‘정리하고’(기능직 371명)를 철회하는 대신 상여금 300%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인력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거부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조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11일 오후 1시 광주 공장에서 임금·단체협상 4차 본교섭을 열어 지난 1일 노조에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기능직 371명에 대한 정

리해고를 하지 않고 1천6명에 대한 아웃소싱(제3차 위탁 근무)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상여금을 현행 800%에서 500%로 300%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당초 노조에 ▲정리하고 371명과 도급인력(아웃 소싱) 1천6명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 20% 삭감과 3년간 임금 및 정기 승호 동결 등 임금구조 개선 ▲적자 규격 생산 중단 등 생산구조 개선 ▲유급일·연월차 휴가 축소 ▲복리후생 축소 또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인력 구조개선과 임금 부분을 일부 수

정해 노조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은 “금호타이어 회생의 필수조건은 경쟁사와의 격차 해소에 있다”며 “하지만 노조와 사원들이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요구해 수정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노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조조정 동의서에 노조가 서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노조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신규 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운영자금 고갈도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도 2개월 급여와 상여금 200%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신용장 개설이 늦어지면서 2개월째 원료 구입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회사 측이 인력 감축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노조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인원 구조조정이 철회된다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고뇌를 하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고광석 노조 위원장은 이날 본교섭이 끝난 직후 “회사측 수정안은 기존안보다는 전향적이지만 임금 삭감 등 전제조건을 달아 완전한 인력 구조조정 철회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이 수정안으로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노조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콘셉트카 ‘레이’ 기아자동차(주)는 10일(현지시간)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2010 시카고 국제 오토쇼(2010 Chicago Auto Show)’에서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카인 ‘레이(Ray)’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의 콘셉트카 ‘레이’는 미래지향적 스타일과 환경친화적 신기술이 결합된 기아차의 첫 하이브리드 전용차로, 뛰어난 동력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 제공)

유통·외식업체 “특수 잡아라”

설렌타인(설날+밸런타인데이)·졸업 시즌 다양한 이벤트

지역 유통업체와 외식업체가 설날과 겹친 밸런타인 데이를 비롯해 졸업, 입학 시즌까지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놓칠 수 없는 밸런타인데이=설과 밸런타인 데이 선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거나 초콜릿을 판매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등 기획안이 다양하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2~13일 1층 광장에서 ‘초콜릿 축제’를 열고 대형 초콜릿 분수대 조형물을 비롯해 대한제국협회 수삼작품들을 전시한다. 또 초콜릿 시연회를 비롯해 초콜릿 마인 퍼포먼스도 연다.

12일 오후 3시부터는 커피 이벤트로 ‘커피 퀴즈쇼’와 ‘베스트 달걀 커피를 찾아서’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면서 설 선물도 되는 제품을 내놓았다.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1만원 상품권을 덤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특정 메뉴를 주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샐러드나 및 스테이크 할인권 등이 첨부돼 있는 달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베이커리 브랜드 푸레쥬르는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케이크를 비롯해 총 63종의 기획상품을 선보이고 15~19일까지 밸런타인데이 고백 성공법을 응모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

기방대전·문구세트 증정

◇졸업, 입학 시즌도 챙기자=지역 유통업체들의 졸업·입학 관련 이벤트는 설이 지난 후 본격적인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설과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고르는 고객들이 졸업·입학 선물도 함께 사도록 하기 위해 신학기 행사를 일찍부터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까지 6층 아동매장에서 ‘학생가방 제안전’을 진행한다. 책가방 구매 고객에게는 호신용 경보기, 노트세트, 무독성 문구세트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오는 28일까지 1층 햇빛 광장에서 ‘교복대전’을 진행한다. 또 지하 1층 패션스트리트 매장에 ‘기방대전’이 함께 열린다. 패밀리 레스토랑 빈스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신규 스테이크 메뉴인 ‘새출발 세트’와 ‘새내기 세트’를 다음 달 말까지 선보이고 세트메뉴를 주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초콜릿 축제 ... 상품권 제공

후진국의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공정무역제품’ 중 하나로 클라로 마스코 초콜릿(2만원)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밸런타인데이 선물특집 특설 행사장을 식품관이 아닌 2층 주차장 연결 통로에 마련했다. 12~13일에는 밸런타인데이 이벤트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콜릿 만들기’와 ‘밸런타인데이 커피 타로점’ 행사를 개최한다.

패밀리 레스토랑 빈스에서는 이달 말까지 ‘러브 와인’을 주문한 고객에게 스테이크 1만원 할인권을 증정한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도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물 등에서 외식 상품권인 ‘아웃백 상품권’을 10만

광주·전남 주택구입 부담 가장 적다

소득대비 집값 싸 중산층 주거복지 안정적

광주·전남지역 중산층 가정의 주택(아파트) 구입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일 발표한 주택구입 능력지수(K-HAI·Korea-Housing Affordability Index)에 따르면 2009년 3·4분기 기준 광주의 K-HAI지수는 37.7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남은 27.7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주택 구입부담이 가장 적었다.

이 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중간 가

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을 가늠하는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이 90.3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 59.1, 울산 56.7, 대전 56.4, 부산 47.4 등의 순이었다.

광주지역은 135㎡ 이하 소규모 주택은 지수 100을 밑돌아 주택구입에 부담이 적었지만 13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113.5로 부담이 큰 것

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60㎡ 이하 28.0, 60~85㎡ 46.5, 85~135㎡ 72.2, 135㎡ 초과 113.5 등이었다.

장상인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이같은 결과는 광주의 주거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광주·전남지역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보급자리론 2천331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 2천848억원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작년 순영업이익 4,249억

신협 중앙회장에 함평 출신 장태종씨

광주은행은 지난해 순영업이익이 4천2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여신지원과 지원가성 예금 증가, 신용카드 매출액 상승, 신규 수출입 거래처 발굴을 통한 외환실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실적은 광주은행이 지난해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620억원에 그쳤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이 2008년의 두 배 가까이 1천499억원에 달한 점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이 올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 감사 감독 이사가 10일 제30대 신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장 신임 회장은 함평 출신으로 순천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을 거쳐 현재 서우공업주식회사와 신아일보 고문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



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신용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비롯한 서민지원 대출 확대를 올해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협중앙회의 서민대출 잔액을 작년 말 9조원에서 올해 말 1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별, 조합별 캠페인과 목표관리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주 판매량 감소 불구 보해 시장 점유율 상승

지난해 막걸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주 판매량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해양조의 소주 시장 점유율은 6.22%로 전년에 비해 0.5% 포인트 상승했다.

11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소주는 32억3천200만 병(360ml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7.2% 줄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막걸리 시장이 급성장한 점이 지난해 소주 판매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주업계 1위인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2008년 51.4%에서 지난해 48.3%로 3.1% 포인트 떨어졌고, 롯데주류의 점유율은 11.1%에서 13.1%로 2.0% 포인트 상승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597.81 (+27.69)
▲ 코스닥지수	498.01 (+6.73)
▼ 금리 (국고채 3년)	4.18% (-0.09)
▼ 원·달러 환율	1,156.80원 (-3.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매각처	소재지	면적	매각일
가정법원	광주광역시 동구	120㎡	2월 15일
가정법원	전라남도 목포시	80㎡	2월 18일
가정법원	전라남도 여수시	150㎡	2월 20일
가정법원	전라남도 순천시	90㎡	2월 22일
가정법원	전라남도 담양군	110㎡	2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서법부 재판장 김철민